

제3권 (6단원 : 믿음의 사람들)

(제35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 여인 룻

- 본문 : 룻기 1:1-18
- 요절 :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 1:16하)
- 찬송 : 93장(새찬송가 93장), 377장(새찬송가 449장)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 초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죽었고, 거기 간 지 10년쯤 될 즈음에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그 즈음에 나오미는 가나안 땅에 양식이 넉넉해졌다는 소문을 들었으므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두 자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곧 나오미는 두 자부가 자기와 함께 갈 이유가 없음을 알고 간곡한 말로 각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일렀고, 이에 오르바는 돌아갔으나 룻은 여전히 시모를 불죽았습니다.

룻은 유다 베들레헴에 온 후로 매일같이 밭에 나가 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던 중에 남편의 친족인 유족하고 덕망있는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 룻의 신앙과 그녀가 받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룻은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이 몸에 밴 전형적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첫째 아들 말론에게 시집을 오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의 손길로 해방시키신 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만나로 먹이신 일,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신 일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듣던 중에 룻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짹트기 시작했고 그 신앙의 짹은 날이 갈수록 견실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무렵에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성숙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고 강권하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 1:16~17).

마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풍문에 들려오는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듯이,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던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와 같은 우상이 아니요, 유일한 참 신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2. 룻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은, 시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녀가 우상을 섬기는 모압 백성 가운데 남아서 여생을 살아간다면 편안한 생을 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영적인 복은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기꺼이 세상의 안일과 즐거움을 버리고 비록 앞날에 가난과 외로움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시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는 룻의 고백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로 용납받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굳은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래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돋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신 33:29) 하였습니다. 이 시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나선 까닭은 바로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자기도 누리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 하나님은 룻의 순전한 믿음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순전한 신앙과 시어머니에 대한 가륵한 효심에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룻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부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할 양식을 얻으려 이삭을 주우러 나간 밭이 그 남편의 친족인 유족하고 덕망있는 보아스의 밭이었던 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를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 사람이 사양하므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고,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봉양을 받으면서 손자의 재통을 보며 평안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룻이 나중에 얻은 영광은 이 모든 행복보다 더한 것이었으니, 그녀와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그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갓 불쌍한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처럼 영광된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언제나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 룻이 보여준 신앙과 효성, 그리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룻을 본받아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